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세상 노래

해성 스님의 찬불가요 2집 '소리의 향기' 발매

“장애인 표교를 하면서 2000년도에 자연스럽게 첫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헛수로 14년 만에 다시 음반을 내게 되었네요. 병원·장애인시설·요양원·군부대 등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서 공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찬불가에 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로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해성 스님의 찬불가요 2집 '소리의 향기' 표지

장애인 복지를 펼치고 있는 해성 스님(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이 찬불가요 2집 '소리의 향기'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 '소리 꽃' '공덕의 밭' '모두 성불합시다' '날마다 좋은 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등 11곡이 수록되었다.

“오랜 시간 장애인 표교를 펼쳐온 스님인 만큼 타이틀 곡인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는 장애·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마음을 담았다.”

장애·비장애인 하나 되는 세상 '말원'

효사상 담은 '아버지' 등도 눈길

“우리는 모두 하나 너와 내가 들이 아니죠/ 함께 하는 그런 세상 우리 모두 만들어 봐요/ 사랑과 자비의 손 꽃 마음 따라 피어나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희망의 향기 되어/ 아름다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들의 사랑의 손길 자비의 메아리여”

해성 스님이 작사하고 능인 스님이 작곡한 이 노래는 너와 내가 들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를 통해 자비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효사상을 담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눈길을 끈다. "병원법당에서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를 어머니라는 노래로 부르게 되었어요. 전국 병원을 돌며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아버지를 위한 노

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음반을 내면서 아버지 노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다라 보니 모두가 제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해성 스님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서울시 북부병원법당에서 매일 1회씩 능인 스님을 초청해 환자들과 함께하는 음악

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은 이번 음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찬불가를 통해 정화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비의소리 대표 반영규 거사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능인 스님 등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찬불음악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전통의 재구성으로 현대美 찾는다

박대성 화백 '원웅' 전... 가나아트부산 7월 12일까지

전남 화순 쌍봉사의 가을밤, 축 늘어진 단풍은 지붕 위를 장식하고 달은 은은하게 세상을 비춘다. 하늘색 연못 위에 오리가 노닐면 쌍봉사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그것은 이미 밤이 아닌 가을이 가을이 아닌 그런 세상이다. 바로 작가가 꿈꾸는 이상향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소산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원웅'이 7월 12일까지 가나아트부산에서 열린다. 가장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통해 역설적으로 현대적 감각을 보여주는 박대성 화백의 작품들은 한국화의 근본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늘 새로운 느낌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10여년간 경주에서 작업해온 작가의 신작들에서는 전통의 풍경과 정신이 오롯이 느껴지며,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역사의 현장의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만월' '담월' '화우' 등에서 볼 수 있는 연못 위 오리의 등장이다. 박 화백은 이 작품들에 과거 산수화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한다.

“한국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을 중요시 하죠. 이런 관습에서 탈피해 이 작품들에서는 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화면을 새롭게 구성해 봤어요. 연못 속에 노니는 오리를 디자인적 형식으로 가미해 재구성했죠. 전통을 소재로 하지만 현대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미술에 심취한 작가는 도자기 자개함 등을 '고미'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 “제가 한국 유물들에 관심이 많아요. 유물 속에서 고미(古美)를 발견했죠. 일종의 정

물하지만 바탕부터 칠해 나가는 서양 정물화하고는 달라요. 백지 위에 그대로 정물을 그려내 유물의 특징을 살렸습니다.”

이는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원웅(圓雄)에 근거한 작업들이다. 작가적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작품들은 어떠한 현상도 각각의 속성을 지닌 채, 동시에 서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원웅'에 이른 것이다.

쌍봉사 등 전통건축 배경으로

연못 위 오리 '디자인 기법' 응용

'원웅'은 이렇듯 시간공간을 초월하며, 정신적 조화를 이루려는 작가의 노력과 상통한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립되는 각각의 속성을 더 높은 차원에서 거대한 하나의 순환으로써 융합하는 일은 박 화백이 일생 통해 추구해 온 심미안과 다르지 않다.

경주 삼릉에서 작업하면서 늘 명상과 산책을 하며 내면을 들여다 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박 화백,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인간 근본을 연구해 가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이렇게 일상



수묵으로 풍경을 표현한 '산바우'



전남 화순의 쌍봉사를 배경으로 한 박대성 화백의 '담월'. 작가는 전통속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화풍을 펼쳤다.

에서 얻은 깨달음을 작품에 투영시킨다.

“뭔가 크게 계획을 세워서 제 작품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 속 내면의 성찰을 통해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제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죠.”

그의 행보는 바쁘다. 8월에는 광주비엔

날레에 출품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9월경 창원에서 중국·일본·한국·대만 작가들과 함께 서예전 '문자전'을 개최한다. 또한 올 연말에는 경상북도·경주시·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투자해 경주엑스포 단지 안에 조성한 박대성 화백의 개인 미술관도 개관한다. (051)744-2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자연의 세계를 조형 언어로

이도연 개인전 6월 26일까지 스페이스선+서

이도연 작가가 6월 26일까지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머무르다'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연과 교감을 통해 인간이 정화되고 무한한 생명력을 찾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명상 공간 속에서 자연의 무한함과 경건함을 발견한 것이다.



자연의 세계를 담은 이도연의 '메모리'

자연의 무한한 세계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한 이도연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바쁜 일상과 도시의 건조함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도연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회

화평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으며 유중창작스튜디오 퇴실 릴레이전, 푸른 기억 등의 전시를 펼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천진불이 빚어낸 불심의 세계

경주박물관 '제30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빛기 대회' 수상작 전시

그리기 으뜸상 '부처'의 박재민

빛기 으뜸상 '금동불입상' 황유술

어린이가 입상했다.

그리기 부문 으뜸상은 '부처'를 그린 박재민(나원초교 4학년) 어린이가, 빛기 부문 으뜸상은 '금동불입상'을 만든 황유술(유림초교 4학년)어린이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비금상(경상북도지사상 등)12명, 솜씨상 33명, 꿈나무상 7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제30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빛기 대회' 우수 작품 전시회가 8월 31일까지 박물관 강당에서 연다.

경주박물관은 지난 5월 26일 열린 '제30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빛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경주와 포항, 울산 지역의 초등학생 396명이 참가해, 119명의

경주박물관은 "우리 문화재를 감상한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빛기 부문 으뜸상 황유술의 '금동불입상'



비금상 이성욱의 '불국사 삼석석탑'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 구채구, 황룡 6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17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퀴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 ① 모든경비 포함
-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